

論壇時評(5)

(朝鮮의 哲學과 그 啓蒙的 役割)

金永植

以上에서 暫間 說明한 듯시 朝鮮 在來의 史學者와 「한글」運動者들이 固有한 「朝鮮的」인 것에 對한 偏愛에 依하여 事物의 바른 □□을 □□히 하고 있는 것이 非□될 것이라면, 우리는 同一한 非□을 朝鮮의 哲學者들에게 加□ 根據를 어느 程度까지 主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理由는 □者와는 正反對로 그들의 「外來的」인 것에 對한 偏愛에서 出發하는 것이다. 勿論 우리는 哲學 自身이 本來 「□來的」의 것이고, 「西洋思想」으로서 眞正한 意味의 「필로소피」는 西洋 아니 東洋에는 잊지 못하였다는 □□을 考慮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타고 하여 朝鮮의 哲學者가 西洋哲學의 □□에만 盡力하란 結論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니, 이러한 立場에서 最近의 論理을 一端할 때에는 哲學者 諸氏가 □世 間에서 멀리 떠러진 象牙塔에서 뛰어나와 哲學과 現實과에 關聯性을 說明하는 進步的 一面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껏까지 「世界的」인 「外來的」인 限界에서 離脫하지 못한 □□的, 觀照的 □□도에 그리고 아는 데에 不滿을 말하지 안할 수 없다.

勿論 이 西洋的인 것, 外來品的인 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진 「이데올로기」와 全然 無關하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現在의 우리의 모든 觀念과 思想이 그 生活까지 西洋的인 된 事實은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이 事情은 반드시 哲學者들의 外來的 傾向을 辨證할 材料가 될 수는 업는 것이니, 哲學의 發生 그 自體가 이미 實際 生活에 對한 關心에서 發生한 것이고 現在 그 地盤 위에서 잇슬 뿐 아니라 아모리 現實生活과 連이면, 或은 아조 無關係한 듯한 哲學 上의 問題까지도 실상은 우리의 生活의 現象에서 出發한다는 一般의 命題가 眞理라 할 것 가트면, 至今까지의 外來的인 西洋的인 傾向은 非難되지 안을 수가 업다. 卽 現實이란 무엇이냐. 그의 哲學的 解釋의 如何를 우리는 모르나 그는 世界的인 現實보다도 더욱 이 땅의 「朝鮮的」인 現實이라고 보는 것이 適當할 것이니, 大概 오늘날의 우리의 現實은 現實世界의 一般으

로서 辨證法的으로 現□되고 잇는 때문이다.

□□ 이 論點이 正當하다 하면 「니히체[니체]」의 現代的 意義의 說敎라든가 쉘스로프, 야스펜스[야스퍼스] 或은 키엘게골[키에르케고르]의 理論의 直輸入이 如何히 우리의 現實과 背馳되고 잇는가, 乃至 進步의인 朴鍾鴻, 朴致祐氏 等の 最近의 力作도 그 自身의 가진 바 進步性에 不拘하고 朝鮮的 現實이 거의 度外視된 까닭에 氏等이 現實과 哲學과에 關聯을 眞□한 態度로서 說明함에도 不拘하고 남의 옷을 입은 듯한 甞김을 가지게 하고, 「우리의 것」으로 바다 들이지 못하게 하는 原因이 明白히 될 줄 안다. 假令 우리는 朴致祐氏의 論文에서 現代的 流行 哲學者 하이텍겔[하이데거]에 對한 詳細한 또 親切한 解説을 알 수 잇섯다. 그러나 朴氏가 하이텍겔 哲學의 現代的 意義와 限界의 說明에서는 그의 哲學의 解説에서와는 反對로 詳細하게 親切한 態度를 取하였다고는 할 수 업섯스니, 勿論 解説 그 自體가 이미 批判의 한 部分이엇다고 볼 수 업는 것도 아니나, 이 哲學이 어찌하여 팻시슴의 哲學이 되엇는가 하는 點은 조금치도 明白히 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우리의 哲學者들의 「限界性」을 發見하라는 것은 넘우 甚한 觀察일가? 통트러 노코 現實과 哲學에 關聯性을 是認하는 것은 在□哲學의 立場으로는 一步前進이라 하겠지만, 그 現實이 具體적으로 正當히 說明되지 못하고 또 그것이 「朝鮮的 現實」에까지 主體的으로 把握되어서 哲學者들이 이 現實의 推想에 積極적으로 參加하여 「哲學하는」 點에까지 到達되지 못하는 限, 이 種類의 哲學的 研究는 우리의 所見으로는 明□事實의 煩鎖스럽고 平凡한 哲學的 □□에 不外하는 듯십다.

이런 見地에서 볼 때 田元培氏의 最近 時評은 現實的 意義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朝鮮의 哲學者들이 着手하여야 할 問題를 示唆하는 點에서 그 意義가 認定되어야 할 것이다. 王大□女史의 「現代的 □□性」에 現實의 □□를 歪曲하여 說明하고 그것을 □□□□□에 利□하라는 것을 日常 發見할 수 잇는 宗教價値의 慣用手段으로서 一笑해 버릴 수 업는 것은 明白하다. 李光洙氏의 「學窓□□」는 現代的 □□한 觀念論과 □□主義의 一稱에 不過하다. 아니 王女史의 危機論을 洗練된 哲學用語로서 表現한 것이라 보는 것이 가장 正確할 것이다. 이러한 例에서도 보는 바와 가티 朝鮮의 哲學者들이 非□□□의 實踐的 把握의 立場에서 뿐 아니라, 哲學 自身의 □□를 위하여도 批判, 克服하지 안할 수 업는 對象을 無數히 가지고 잇는 것이다. 最近 □□文의 定期出版 中에 가장 만흔 種類를 宗教關係 出版物이 占領하고 잇는 現實이며, 其他 無數히 우리가 日常 經驗하는 現象은 哲學者에게는 아모 關係도 업는 것일가?

現實 朝鮮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過去의 것, 傳統的으로 가지고 내려온 것에 새로운 流入品보다 더욱 만히 殘存하고 있으며, 이 「낡은 것」은 「새로운 것」과 함께 殘存하여 巨大한 勢力을 일우고 있다. 우리는 朝鮮의 哲學者들이 受難過程에 있는 哲學의 참된 □□을 위^하야, 또 民衆啓蒙의 立場에서 이 方面에 主力하여 哲學의 本來의 使命에 □眞하기를 希望한다.